

2024. 4. 30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

서울식물원장

박 미 성

2104-9710

전시교육과장

유 혜 경

2104-978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

<https://botanicpark.seoul.go.kr>

서울식물원 기획전시 <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> 개막

- 자연, 인공, 환경,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담은 서울식물원의 기획전시 개막
- 4.30.(화)부터 서울식물원 야외정원, 온실, 전시장 4곳에서 대형 설치미술 전시
- 전시해설, 5.18.(토)부터 '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' 통해 신청

- 서울식물원은 2019년 개장 이후, 식물문화와 생태감수성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해왔다. 2024년에는 기존의 전시 공간인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, 마곡문화관과 더불어 온실과 주제정원까지 기획전시 공간을 확장하여 개막한다.
- 2024년 4월 30일(화)부터 개막하는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《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》(이하 '리듬' 전(展))는 녹음, 스튜디오 1750, 박봉기, 이병찬 작가가 함께하며 자연, 인공, 환경, 인간까지 다양한 존재들의 인식과 인정에서 시작하는 '조화'에 관한 주제로 대형 설치미술,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.
- 1928년에 지어져 근현대 농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363호 마곡문화관(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)에

서는 영상, 사운드, 조경 분야의 아티스트 그룹 '녹음'이 '물'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.

- 서울식물원의 메인공간으로 열대관과 지중해관이 있는 온실에서는 식물의 형태에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'스튜디오 1750'의 작품이 펼쳐진다.
 - 사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서울식물원의 야외 정원인 주제정원에서 '박봉기 작가'가 대나무를 한 줄, 한 줄 엮어 구현한 대형 설치미술 작품 2점을 만날 수 있다.
 - 서울식물원의 교육 문화공간인 식물문화센터의 프로젝트홀2에서는 도시에 태어난 생경한 생명체의 모습을 표현한 '이병찬 작가'의 움직이는 설치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.
- 이번 전시는 서울식물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으로 식물과 예술 작품을 함께 만나고, 즐길 수 있으며 흥미로운 예술 산책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《리듬》展 중 이병찬 작가의 작품은 식물문화센터 2층 프로젝트홀2에서 아티스트 그룹 녹음의 작품은 마곡문화관에서(운영시간: 10:00~17:00)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박봉기 작가의 작품은 주제정원에서 스튜디오 1750의 작품은 온실에서 입장권 발권 후에(운영시간: 09:30~18:00) 관람할 수 있다.
(매주 월요일 서울식물원 전체 휴관)

- 더불어 5월 18일부터 모든 작품에 대한 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, 토요일에 진행되며,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(yeyak.seoul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접수가 가능하다.
- 정규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5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2회(11:00, 15:00), 토요일 1회(11:00) 진행된다.

-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은 “서울식물원 기획전 《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》는 식물원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는 기회로 자연, 환경, 인간에 관한 생각의 확장을 돕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, 서울식물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문화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: 1. 서울식물원 기획전 <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> 포스터 1부.
2. 작품 설치 사진 1부. 끝.

2024 서울식물원 기획전

〈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〉 포스터



〈붙임2〉

2024 서울식물원 기획전

〈리듬: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〉 작품 설치 사진



박봉기 작가 작품
(위치 : 주제정원)



녹음 작품
(위치 : 마곡문화관)



스튜디오 1750 작품
(위치 : 온실)



이병찬 작가 작품
(위치 : 식물문화센터 2층 프로젝트홀2)